



반산스님의

경전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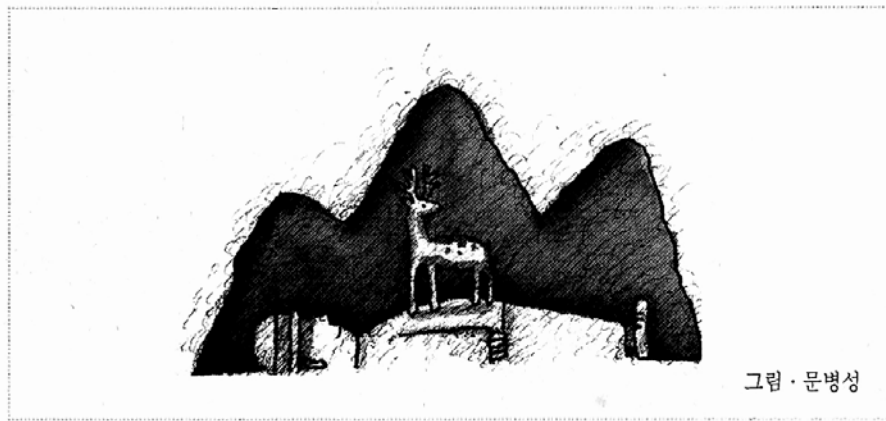
화엄경 ㉔

이제 일곱번째 보광명전법회에 참석해 보자. 제27 심정품(十定品)부터는 등각(等覺)·묘각(妙覺)의 부처님의 경지에서 설법한 내용이다. 그래서 여러출현품 이전까지의 10품은 등각법문이고 여러출현품과 다음의 제38 이세간품(離世間品)은 묘각법문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처럼 보광명전에서 다시 11품이 설해진다. 그 가운데 제 32 보살주처품(菩薩住處品)에 이런 내용이 있다. 사방과 사유(四維)에 있는 산과 바다를 소개하면서, "동북방에 청량(淸涼)산이 있으니 옛적부터 보살들이 거기 있었으며, 지금은 문수사리보살이 그의 권속 일만 보살과 함께 그 가운데 있으면서 법을 설하느니라. 바다 가운데 금강산이 있으니 옛적부터 보살들

님이시다. 관음보살의 32응신(應身)이나 석가불의 천백억(千百億) 화신이 그 좋은 사례가 된다. 출현이란 여러성기묘덕보살(如來性起妙德菩薩)을 통하여 화엄의 성기사상(性起思想)을 보인 내용이다. 먼저 경문을 잠시 보자.

"그 때 세존께서 눈썹사이의 흰 털(眉間白毫相)로부터 큰 광명을 놓으니 이름이 여러출현(如來出現)이요, ...그 광명이 사방은 허공 법계와 모든 세계를 두루 비추며 오른쪽으로 열 번 돌아, 여래의 한량없이 자유자재함을 나타내고, 수많은 보살대중을 깨우치며, 일체 사방의 세계들을 진동하며, 모든 나쁜 길의 고통을 없애고 모든 마군의 궁전을 가리며, ...이런 일을 하고는 다시 와서 보살대중을 오른쪽으로 돌고는 여러성기묘덕보살(如來性起妙德菩薩)의 정



그림·문병성

자연 - 인간은 한 생명체

불교와 과학 <45>

저기 서 있는 치악산을 보기 위해서는 치악산과 내가 어느 거리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내가 치악산 안으로 들어가 있으면 산의 전체를 볼 수 없다. 내가 산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상과 관찰자는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과 같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이 생각이 바로 서구 과학을 잉태시킨 정신적 촉매가 되었다.

그리스어로 '테오리아(theoria:이론)'라는 말이 있다. 그 말은 극장이라는 의미를 지닌 '시어터(theater)'라는 말과 그 어원이 같다. 즉 저기 멀리 떨어져서 대상을 본다는 뜻이 들어 있다. 시장에 싸움판이 벌어졌을 때 싸움을 말릴 생각은 안 하고 제3자의 입장에서 재미있게 구경하는 것, 혹은 관객이 절대로 동참할 수 없는 무대 위에서 벌어지는 공연이 바로 시어터이며, 테오리아의 시작이다. 즉 테오리아는 대상과 내가 분리되는 일이다. 이러한 분리작업을 통해서만 과학이론이 형성된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객관성의 함정이 숨어 있다. 대상과 관찰자가 분리되어야 객관성이 보장된다는 점은 과학체계 안에서는 당연하지만, 그런 객관화의 작업을 통해서 자연의 경험적 대상이 추상성의 수학적 대상으로 바뀐다. 경험적 대상을 수학적 대상으로 바꾸는 작업은 서구 사상의 뿌리라고 하는 플라톤 철학의 기본이다. 이러한 플라톤 철학은 서구 사상 특히 서구 과학의 핵심이기도 하다. 과학이론의 위대한 성과는 경험적 대상을 수학적 대상으로 환원시킬 수 있다는 데 있었다. 과학법칙이 그 대표적인 실례이다. 뉴턴에게 모든 경험 대상은 오로지 수학기호일 뿐인 질점(質點, mass point)으로 환원된다. 예를 들어 천문학의 대상인 달은 그 달의 무게중심인 질량의 중심점으로 환원되어 경험의 달이 수학의 대상으로 바뀌게 된다. 토끼가 방아 찧고 이태백이 놀던 달이 갑자기 만유인력 수학기호의 한 질량 중심점으로 전락한다는 말이다.

기하학으로의 환원을 통해 자연과학이 발전되기는 했지만 그렇게 환원된 자연은 그 생명성이 상실되고 오로지 수학의 대상이 되어 버렸다. 그러한 자연은 과학의 탐구대상으로서는 훌륭하지만, 그런 자연을 사람의 마음 속에 투영

시켜 인간의 의미를 찾으려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그러한 자연은 이미 화학화된 자연일 뿐이기 때문이다.

이제 살아 있는 자연을 볼 필요가 있다. 그러자면 과학을 배제해야 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양자역학을 성립시킨 닐스 보어(Niels Bohr)라는 물리학자가 있다. 그가 자신의 상보성 이론을 설명하는 예를 보자. 생세포를 관찰하는 경우 우리는 그 세포를 살아 있는 조직에서 떼어 내서 염색을 한 다음 현미경의 대물 렌즈 앞에다 갖다 놓는다. 그리고 우리는 그 생세포를 관찰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생세포를 관찰하기 위하여 생세포를 조직에서 떼어 내는 순간 그것은 생세포가 아니라 죽은 세포일 뿐이다. 그렇다면 진정 생세포에 대한 과학적 탐구 행위는 가능한 것인가? 고전과학의 입장에서는 영원히 불가능할 것이다.

전통과학에서 과학이론의 성립은 결국 자연을 파괴시키는 데서 출발했다. 그 결과 자연과학의 성과와 환경문제는 배제되고 모순되는 일이 찾아졌다. 자연환경은 나와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항상 저기 멀리

있는(there is) 기하학적 대상으로 전락된 자연을 탐구하는 과학은 환경문제와 갈등을 일으키게 된

다는 말이다. 자연은 저기 멀리에 있는 박제품이 아니라 내가 질문하고 참여하는 방식에 따라 놓여지는 것이므로

말이다. 자연과 내가 공동의 질문거리를 가질 때, 비로소 자연과 나는 하나가 될 수 있다. 자연을 죽여 있는 회색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살아 있는 유기체로 보는 일이기도 하다. 여기서 유기체라는 의미는 자연 자체가 하나의 살아있는 생물체라는 뜻은 아니다. 단지 보편인격과 생명성, 그리고 자비성이 내재한다는 뜻에서 자연을 유기체적이라고 한 것이다. 그래서 자연은 꽃과 배춧잎이 빠가기만 하는 그런 자연의 저장창고가 아니다. 그런 죽어 있는 자연은 그 안에 들은 자원을 다 쓰면 별 불일 없는 것으로 전락될 뿐이다.

그래서 전환경적 자연관이란 자연과 내가 하나라는 사실에서 출발한다. 그런 사실에 공감하는 일은 아주 간단하다. 개불의 명분으로, 꽃피는 명분 등으로 생명의 나무들이 무참히 베어져 나가는 현실을 나의 손가락이 잘리는 아픔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다시 말해서 바로 나, 나의 자아 속에 투영되어 있는 자연을 찾으면 된다. 그리고 자연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나도 그렇게 살면 된다. 내 안에 투영된 부처의 모습을 찾아가는 일과 너무나 같은 일이다.

최희중/삼지대 교수 jchok@chak.sangji.ac.kr

무고한 생명살상 규탄 자비 넘치는 세상 발원

지구촌 불교 / 각국 테러참사 추모

지난 11일 미국 테러 사태와 관련해 각국의 불교계는 무고한 희생자를 위한 추모법회를 봉행하면서, '자성'이라는 해법을 내놓고 있다. 희생자를 애도하고 테러를 규탄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대참사 이후 예견되는 폭력의 악순환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모든 존재는 인연 소산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입각한 것이다.

이번 테러 사태에 대해 가장 먼저 성명서를 낸 곳은 국제불광회 세계총회. 총회는 12일 홈페이지에 "무차별 공격으로 고귀한 생명을 빼앗은 이번 테러행위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이 세상에서 테러와 같은 죄악이 사라질 수 있도록 선의의 뜻을 가진 모든 사람들과 함께 손을 잡고 사랑과 자비가 충만한 세상을 건설하자"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또한 총회는 15일 홈페이지에 희생자 추모 페이지를 만들고, "참사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이번 사건으로 상처받은 영혼들이 대자대비한 부처님의 가피를 입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글도 실었다.



<15일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공원에서 이번 테러 희생자 추모법회를 봉행하고 있는 캄보디아 스님들.>

미국 동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각국의 불교계 연합체인 미국불교회 역시 12일 성명을 통해 "수많은 인명을 무차별로 살상한 이번 테러

국제불광회 희생자 위문 사이트 열어

캄·태·중 불교계도 잇달아 천도법회

는 천인공노할 범죄행위'라며 테러 행위를 규탄하면서 "미국 정부는 이 일이 더 큰 재앙으로 번지지 않도록 슬기롭게 대처해 달라"고 밝혔다. 미국불교회는 15일 뉴욕에서 추모법회도 봉행했다.

캄보디아불교연합회는 15일 프놈펜 공원에서 희생자의 천도를 바라는 추모법회를 봉행했고, 태국과 중국 불교계도 18, 19일 추모법회를 각각 봉행하고 "미국 국민이 엄청난 테러 공격의 상처로부터 하루빨리 치유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미국 국민을 위로했다.

한편 티베트와 홍콩 불교계의 경우, 오사마 빈 라덴 및 비호 세력들에게 '선전 포고'를 한 조지 W.부시 미국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자제를 촉구해 주목된다.

12일 부시 대통령에게 보낸 위로의 서한을 통해 "폭력은 폭력의 악순환만을 증가시킬 뿐"이라고 강조한 티베트 불교계의 지도자 달라이 라마는 "모든 폭력은 오로지 파괴를 가져올 뿐이며, 이러한 것들은 비폭력의 길을 방해한다"며 "길게 보자면 비폭력만이 테러리즘을 물리칠 수 있다"고 미국의 보복공격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혔다.

홍콩 불교계의 지도자인 록 쑹 씨는 15일 저녁 홍콩 불교연합회 강당에서 열린 추도식 연설에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 수천명의 희생이 불가피한 만큼 미국은 용서와 자비를 보여 달라"며 "테러분자들의 공격이 아무리 잔학무도해도, 또 다른 인명이 살상되는 '살인'의 악순환이 되지 않도록 자신들의 분노를 식혀야 한다"고 말했다.

오증국 기자 gobaoou@buddhapia.com

부처 알려면 뜻 허공같이 하라

망상·집착 여의고 걸림 없으면 여래

이 거기 있었으며 지금은 법기(法起)보살이 그의 권속 일천이 백 보살과 함께 그 가운데 있으면서 법을 설하느니라."

이렇게 금강산을 소개하고 있다. 그런데 특기할 사실을 보도록 하자. 청량사에서 말하였다. "동해 동쪽 가까이 금강산이 있는데 산 전체가 금인 것은 아니지만 아래위와 네 방위와 산골짜기에 흐르는 물 속에 모두 금이 들어있다. 그래서 멀리서 보면 전체가 금으로 보인다. 또 해동 사람들은 예로부터 이 산중에서 가끔 성인이 출현하신다고 전하고 있다." 우리 금강산의 명성이 이미 오랜 옛날부터 중국에 알려졌으나 보다. '오대산(五臺山)의 문수(文殊)신앙'과 신라대의 '화엄십왕(華嚴十王)신앙'을 성립시킨 증거문으로도 볼 수 있었다.

이제 제37 여러출현품(如來出現品)을 보자. 여기서 '여래(如來)'는 석가모니 부처님만이 아니라 법신, 보신, 화신 곧 삼불원융(三佛圓融)의 부처님이요, 중생신, 국토신 등으로 자재롭게 중생의 기도와 회구에 응하는 십신무애(十身無礙)의 부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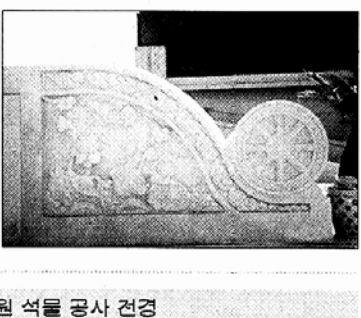
수리로 들어갔다."

'성기사상(性起思想)'이란 법계연기사상과 함께 화엄의 중요한 법문이나 '선(禪)과 화엄(華嚴)의 사상적 통로'가 되어왔다. 성기(性起)라는 말을 몇 가지로 간추린다면 ①여래의 출현·출생 ②수행이 무르익은 보살이 산 전체가 금인 것이지 아 래위와 네 방위와 산골짜기에 흐르는 물 속에 모두 금이 들어있다. 그래서 멀리서 보면 전체가 금으로 보인다. 또 해동 사람들은 예로부터 이 산중에서 가끔 성인이 출현하신다고 전하고 있다." 우리 금강산의 명성이 이미 오랜 옛날부터 중국에 알려졌으나 보다. '오대산(五臺山)의 문수(文殊)신앙'과 신라대의 '화엄십왕(華嚴十王)신앙'을 성립시킨 증거문으로도 볼 수 있었다.

"누구나 부처 경계 알고자 하면 그 뜻을 깨닫기 허공과 같이 하고, 망상과 모든 집착 멀리 여의고 마음 향하는 곳 걸림 없 도록 하라(若有欲知佛境界 當淨其意如虛空 遠離妄想及諸取 心所向皆解脫)." 이어서 여래의 몸, 음성, 마음, 경계 등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

■불교사상연구소 연구원

◆ 석재 가공 및 석공사 전문건설업체 ◆



한마음선원 대구지원 석물 공사 전경

주요 공사 사찰

운문사, 봉녕사, 부산해운정사
봉암사, 용운사, 한마음선원 대구지원
용수사, 청주 수도원, 한마음선원 외...

합동석물(주) 대표 탁회 열

강북 구령동 다산빌딩 714-10

전화 : 054) 955-8200~1 · FAX : 054) 955-8202 · 휴대폰 : 011) 509-1443



"BBS 불교방송 (길을 찾아서) 출연 특허에 의한 승복의 우수성을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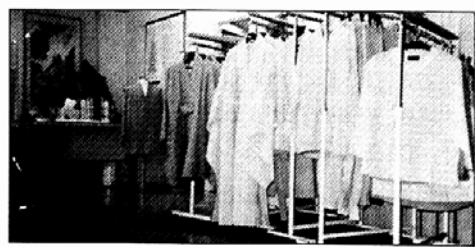
국내 최초로 특허청에 의장등록 (제 0246178호)

승복·법복·누비·바탕 판매 안내

● 행복을 기원하는 저희 기원성유에서는 "수레바퀴"라는 상표로 승복 및 법복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특허청에 의장 등록 되었습니다.

특징 :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연꽃, 울자, 만자 무늬를 특허청에 의장등록됨.

- ◆ 추동복 : 촉감이 매우 좋고 땀이 있으며 착용감이 아주편함.
- ◆ 누비 : 고급원단으로 촉감이 부드러우며 소매 끝에 바람이 들지않게 보온성이 우수함. (누비상하, 누비두루마, 누비방한복, 누비보온복)
- ◆ 장삼 : 추동장삼으로서 아주 가볍고 구김이 많이 가지않는 고급스러움을 더한 장삼.
- ◆ 가발 : 이중방수처리하여 물이 스며들지않고 언제나 모양새가 일정함이 특징.



판매가격표			
종류	스타일	구분	판매가
추동복	저고리 비지	남·여	150,000
	두루마	남·여	130,000
	중 방한복	남·여	120,000
누비	상 하	남·여	190,000
	두루마	남·여	160,000
	방한복	남·여	130,000
	보온복	남·여	70,000
장삼	(조계종 태고종)	남·여	220,000
		중	28,000
		소	23,000
마당 (연꽃무늬)			30,000

* 차이나, 라운드, 신도복 등 다양한 제품을 준비함.

지역 판매점 모집

■ 유사품이나 모방할 경우 법적인 제재를 받음

30년 전통의 승복 전문업체 '수레바퀴'

기원성유

본사 : 대구 동구 신천 3동 139-1 봉영 B/D 3F302호
전화 : 053)764-4114 H·P : 011)9850-4400